

■ 사우회 임원간담회

선후배 간 벽이 있었다면
이제 다리를 놓자

MBC글로벌미디어센터

사우회요?

제가 왜 사우회에 가입해야죠?
후배들의 솔직한 질문에 교차하는
난감과 공감.

사우들의 미래를 도모하는
사우회로 전환해야

지난 7월 24일, MBC 글로벌미디어 센터(MBC 강남 사무실)에서 「2025년 사우회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받은 뒤 가진 임원간담회에서 임원들은 “2012년 장기간 파업으로 선후배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진 측면도 있지만, 후배들의 그러한 질문은 외면이 아니라 사우회가 바뀌어야 한다는 시대의 목소리일지 모른다”는 일부 의견에 귀를 기울였다.

참석자들은 후배들의 난처한 질문에 확실한 답변을 해 줄 수 있는, ‘사우회 미래 10년’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진지하게 피력했는데 대체로 ‘사우회가 앞으로 계속 존재해야 할 이유’와 ‘후배들의 사우회 가입률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하는 두 토픽에 초점이 모아졌다.

임원진들의 발언 순서대로 요약하였다.

이향진 이사 “퇴직 예정 사우들이 만약 안식년에 가입하면 평생 회비 50만 원에서 단 몇만 원이라도 빼줄 수 있으면 좋

겠다”면서 “퇴직 사우들이 사우회 사무실을 사랑방처럼 이용할 수 있게 개방해 주자”고 말했다.

강영은 이사 “본인 역시 사우회에 가입할까? 말까? 고민했던 적이 있었다”면서 “사우회에 나갈 필요가 있는지, 나간다면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전혀 의문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 “그래야 나가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고 본사도 후배들도 사우회를 보는 눈이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김창옥 이사 “MBC 선후배 사이는 2012년 장기 파업 전과 후로 확인한 불연속선이 존재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 (2면에 계속)

■ 본사 소식

2025 MBC 신입사원 공개채용

■ MBC는 8월 19일, MBC 상암 사옥에서 미디어·콘텐츠 분야의 AI 전환(AX)을 위한 업무협약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컨소시엄 주관사로 선정된 ‘국가대표 AI팀’ NC AI와 체결하고, 미디어와 AI, 게임 산업을 연결하는 새 밸류체인 구축에 협력하기로 했다.

■ MBC 라디오의 간판 시사프로그램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이 3분기 한국 리서치 청취율 조사에서 17.5%로 3년 연속 청취율 1위에 올랐다. 채널 전체의 강세도 두드러져 MBC 표준FM(서울/수도권)은 채널 점유청취율 28.2%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음악 전문 채널 MBC FM4U(서울/수도권)도 점유율 12.3%를 기록함으로써 라디오 청취자 중 40% 이상이 MBC 라디오를 듣는 것으로 조사됐다.

■ “이어서 새로움을 채우다”의 2025 MBC 신입사원 공개채용이 시작됐다. 모집 분야는 △ 취재기자 △ 영상기자 △ 콘텐츠전략PD(편성PD) △ 예능PD △ 시사교양PD △ 방송촬영 △ 방송경영(인사) △ 미디어엔지니어(방송기술) 등 총 8개 부문으로 이미 서류전형 합격자가 발표되었다. 필기전형과 역량면접, 다면심층면접과 최종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8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수가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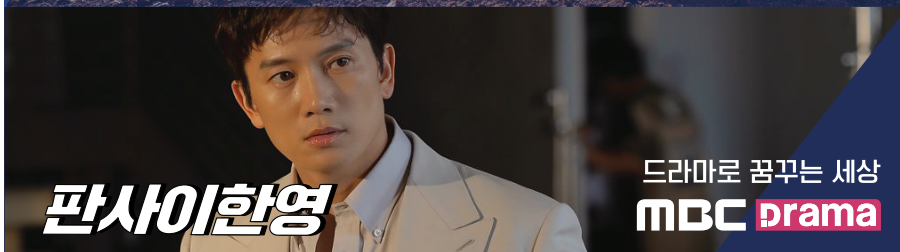
MBC+

CREATIVE MEDIA GROUP



대한민국 NO.1 스포츠 채널

MBC SPORTS+



“후배들을 만나보면 만나볼수록 자신들이 사우회에 왜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명분이나 이유를 애써 찾으려 하지 않는 듯하다”며 아쉬워했다.

이에 대해 **양영철 회장**은 “그런 불연속선을 건너내는 것이 바로 사우회의 역할이자 과제”라며, “가입 대상자를 설득하기 위해 편지, 문자, 전화를 시도했는데 앞으로 직접 만나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임무혁 이사 “퇴직과 동시에 자동으로 사우회에 가입이 되도록 사우회 집행부가 본사와 협상을 해야 한다”면서 “그런 뒤에 사우회의 위상을 논의하는 게 순서”라고 했다. 실제 KBS의 경우 사우회에 자동 가입되는 절차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승필 부회장은 신규 회원 확보의 어려움, 사우들의 낮은 참여율, 그리고 사우회의 흑자 경영에 대한 부담 등 현실적인 문제에 관해 “예산 문제가 어렵겠지만 (적립금을 쌓기보다) 사우회가 북적대도록 사우들의 활동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며 “사우회만의 연구 및 공적 아이템을 독자적으로 개발해 방송문화진흥회에 예산 지원을 요청하는 등 외부 협력을 받는 방법도 찾아보자”고 제안했다.

지난 5월에 사우회 AI 교육을 진행한 **김명철 이사** “사우회의 재정 지원으로 이루어진 이번 AI 교육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차례의 교육으로 성과가 분명히 있었고, 온라인 네트워크상에서 사우들이 친교를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해 AI가 사우회의 활성화를 위한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고춘호 이사 “81년 언론통폐합 이후 광고 영업을 하던 직원들이 사표를 내고 KOBACO로 입사했다”면서 “현재 사우회 업무파트에는 78년 입사자들을 끝으로 (60~70여 명이 가입해 있지만) 명맥이 끊어질 운명에 처해 있다”고 호소했다.

조성식 이사 “단순한 퇴직자 모임이 아닌 사우회는 MBC의 뛰어난 영상, 자막, 미술 등을 본사 후배들과 기억으로 공유하고, 때로는 후배들이 길을 묻고 때로는 사우회가 본사에 힘을 보태는 공동체”라면서 “MBC가 타 방송사보다 기술적으로 우수한 점을 회보에 실어 사우회에 관심을 쏟게 하자”고 했다.

박노홍 부회장 “어느 조직이든 신입회원 모집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는 게 개인적인 경험치”라면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소통하고 개별적으로 공략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사우회보의 지난 호 글이나 기사를 소재로 퀴즈를 내고 응모자에게 경품을 줌으로써 사우회보를 읽도록 유도하고 사우회 안에 각종 소조직 모임을 만들어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을 찾자”고 제안했다.

김승월 부회장 “2012년 이후 MBC는

양분된 느낌을 받는다”면서 “판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은 후배들에게 어느 컴퓨터 운영시스템에서든 받아볼 수 있는 PDF파일로 사우회보를 보내주면 1~2년 뒤 후배들의 단했던 문이 열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최천 부회장 “사우회 안에 동호회를 지원하자는 조승필 부회장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전제하고 “더 많은 동호회를 적극 발굴하고 육성해 활기찬 사우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한귀현 부회장 “지금 사우회의 고민은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고민인 만큼 앞으로도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라 전망하면서도 “어라? 이 친구가 이렇게 살고 있네, 이 양반 이런 일을 했어? 와 같이 사우들이 살아가는 재미있는 사연이나 이야기를 사우회보에 적극 반영해 달라”고 주문해 한 사람의 이야기가 백 명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방식의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고창근 부회장 “퇴직 예정 사우들 못지않게 이미 퇴직한 사우들 가운데 아직 사우회에 가입하지 않은 이들도 상당수에 달하고 있으니 사우회 적립금을 사용해서라도 이들을 가입시킬 방안을 마련해 보자”고 했다.

정은숙 이사 “쌀도 주고 장례용품도 오는데 당연히 가입해야지 하신 선배의 말한

마디로 가입했다. 저때만해도 그런 분위기였지만 지금은 다르다, 갓 입회한 신입회원들이 사우회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참여 기회를 마련하고 그들에게 역할을 부여해 문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퇴직후에 이곳에서 서로 맘 맞는 선후배가 재밌게 시간을 보낼수 있는 놀이터가 되게 해보자”고 했다

최근 본사의 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사우회 가입 설명회를 가졌던 **류근중 사무처장**은 “사우회 가입률이나 열기가 예년에 비해 줄어든 상황”이라면서 “각 부문의 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문 대상자들의 사우회 가입을 적극 독려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인근 중식당으로 자리를 옮긴 참석자들은 ‘본사가 잘 돼야 사우회도 잘 되는 거 아니냐? 사우들 한 사람이라도 더 가입시키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는데 이견을 보이지 않았고, ‘사우회가 은퇴자 모임이란 이미지를 탈피하고, 사우들의 은퇴 후 삶을 재창출하는 가칭 ‘MBC 세컨드 크리에이티브 허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담아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사진촬영: 전 사우회 사무처장 이석일
인터뷰/정리: 편집장 윤영무



그가 미국 생활을 청산하고 사우회에 복귀한 까닭은?

총무국 수송부 소속으로 중계차를 운전했던 지원용 사우. 그는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의 거센 소용돌이 속에서 명예퇴직을 하고 4년 뒤, 가족을 데리고 미국 행 비행기에 올라 메릴랜드주에 정착했다. 그때가 2004년. 그로부터 정확히 20년 만인 2024년 11월, 그는 미국 생활을 청산하고 공무원이 된 아들을 남겨놓고 아내와 함께 귀국했고, 6개월 뒤 사우회를 찾아 남은 회비를 내고 휴면 회원에서 일반 회원으로 복귀했다.

큼직하고 종긋한 귀에 잘 생겼다는 인상을 풍기는 그를 사우회 사무실에서 다시 만났을 때 “내게 인터뷰할 게 있느냐?”고 겸손해 했지만 탱크와 항공기에 들어가는 군수용 케이블을 만드는 공장 노동자로 재출발한 그의 이국 생활은 절대 녹록지 않았다.

수년간 쌓이고 쌓인 스트레스에 코마(coma, 혼수상태)에 빠져, 병원 응급실의 차가운 불빛 아래 6개월간 사경을 헤맸다. 숨을 쉴 수 있도록 목에 호스를 꽂고, 음식을 넣기 위해 배에 호스를 연결한 산송장이나 다름없던 그가 깨어났음은 기적이었다.

문제는 돈이었다. 한국에 있는 아파트 등 전 재산이 병원비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돈이 19만 달러(우리나라 돈으로 약 3억원)였다. 불행 중 다행히 그는 ‘재산이 없는 사람’으로 인정돼 미 연방정부로부터 그 돈을 탕감받았다. 그렇게 전 재산을 날린 그는 오히려 흥분했다. 왜냐하면, ‘지금 살아있는 자



미국 메릴랜드주 소재 군납용 케이블 제조사에 근무했던 지원용 사우

체가 고귀한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그는 ‘그렇다면 의료보험이 잘 된 고국으로 돌아가자’고 생각했다. 그리고 생이 허락하는 한 친구들과 실컷 놀고 여행을 다니고 싶었다.

“인생 별거 있습니까? 만나서 웃고 떠드는 게 제일 큰 행복이지요” 하면서 마침내 그가 사우회 문을 두드렸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명예, 돈, 권력 따위가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랍디까. 사우 여러분 그저 건강부터 챙기세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이라도 웃는 얼굴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그의 눈시울이 어느새 촉촉해졌다.

사우회를 패싱하는 풍조 속에서 지원용 사우의 복귀는 묘한 느낌을 준다. 인생이란 결국 몇 권의 책과 몇 잔의 술, 그리고 벗들과 터져 나오는 웃음으로 요약된다. 그 단순한 진리를 잊지 않으려는 공동체. 그것이 사우회의 존재 이유가 아니냐고 그는 말하고 있는 듯하였다.

돈? 권력?
우선 건강이 최고!
KOREA
MBC 사우회와
인생을 즐겁게



안개 속에 묻힌 베이징 중난하이

지난 9월 3일 중국 80주년 전승절 열병식에서 시진핑 주석은 푸틴과 김정은을 양옆에 세우며 서방과의 맞대결을 상징적으로 연출했다. 그러나 장대하고 화려한 장면 뒤로 그의 권력의 향방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시진핑의 실각설 VS 견재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을 비롯해 중국 최고 지도부의 집무실과 거주지가 모여 있는 권력의 핵심 공간 베이징 중난하이(中南海). 텐안먼(天安門)광장 인민대회당과 지척에 있는 중난하이가 짙은 안개 속에 잠겨 있다. 시진핑 실각설과 견재설이 그릴싸한 논리로 포장돼 서방세계로 확산하고 있다.

시진핑 실각설을 주장하는 쪽은 중국 인민해방군을 총괄하는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7명)의 2인 자 장유사 부주석이 이미 군을 장악했고, 후진타오 전 주석과 원자바오 전 총리의 지원을 받은 장유사에 의해 시 주석계 사람인 허웨이둥(중앙군사위 서열 3위)과 마오화(서열 5위)가 실각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중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하며 중산층들의 소득이 줄어든 데 대한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시 주석이 시 주석 이전까지 지켜왔던 7상8하 (67세 이하이면 유임, 68세 이상이면 퇴임해야 한다) 체제를 바꿔 장기 집권을 꾀한 데 따른 반감도 있을 것이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시진핑의 실각설은 실체가 없는 뜬소문이라는 입장이다. 우선 최근 공식 석상에 모습이 보이지 않아 의구심을 산 것은 8월 21일 시짱 자치구 60주년 설립 행사에 참석하면서 잠재였다. 8월 초 베이이다이허(北戴河)에서 열린 원로회의 및 80주년 전승절 행사도 별 이상 징후 없이 끝났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진핑이 추진하고 있는 '강한 중국'이라는 주요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고 있다. 올해 끝나는 14차 5개년 계획은 물론 내년부터 시작되는 15차 5개년 계획도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이다.

필자가 지난 7월 베이징 방문 때 만난 외교 전문가들이나 교민들의 분석도 시진핑 견재에 힘을 싣고 있다. 하지만 실각이나, 견재냐의 이분법적 판단에서 한발 물러나 큰 틀에서 보면 조심스러운 예측이지만 중국 권부 중심에 변화의 흐름이 읽히고 있다. 정치권과 외교가에서는 변화의 시점으로 오는 10월 열리는 4 중전회(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 회의)를 꼽고 있다.

시진핑 주석 4연임 가능성은 낮아

이때 시 주석이 갖고 있는 3개의 타이틀인 ▲국가 주석 ▲공산당 총서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가운데 국가 주석직만 유지하고 당 총서기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에서는 물러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 나아가 차기 주석을 예측할 수 있는 상무위원과 최고위급 지도부인 정치국원을 다시 뽑을 것이란 말도 물밑에서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중국이 개인이 아닌 공산당이란 집합체에 의해 움직인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 주석은 2027년까지 모든 직을 유지한 후 자연스럽게 물러날 것이란 분석이 현재로선 더 설득력 있어 보인다. 중국공산당이란 커다란 집합체가 불안정을 포함한 현재 중국의 상황을 다 담아낼 수 있으며, 시 주석의 중도 하차로 발생할 혼란을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경우도 남은 2년의 임기 동안 시 주석이 모든 전권을 갖고 행사하는 1인 중심 체제에서 과거의 집단지도체제로 힘의 균형이 넘어갈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2027년 이후에도 시 주석이 집권하는 4번 연임은 현재로선 가능성이 낮은 시나리오다.

이런 가운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무기로 전 세계를 향해 무차별 공격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원칙이나 기준보다 오직 미국 우선주의만 있을 뿐이다. 한국도 관세 폭탄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선택까지 강요받고 있다. 트럼프는 우리나라에 중국 편에 설 것인지 미국 편에 설 것인지 양자택일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란 등식은 끝난 듯 보인다. 영원한 친구는 국제 질서에서 있을 수 없다.

고주룡(보도)/전 베이징특파원



10월 22일

사우회 등산대회

가을의 맑은 공기 속에서 땀을 흘리며 함께 걷는 발걸음 속에서 우정을 나누는 사우회 등산대회가 10월 22일 우면산 일대에서 열린다. 사우회원 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대회는 산행 뒤에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도 준비되어 있다. 함께 오르며 더욱 즐겁고 함께 내려올 때 더욱 든든한 사우회 등산 대회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회장/총무 최정일(010-4214-5534)



12월 4일

2025 사우회 송년회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정을 나누는 2025년 MBC 사우회 송년회가 12월4일 역삼동 「아모리스 역삼」에서 열릴 예정이다. 따뜻한 만남과 흥겨운 웃음, 그리고 한 해의 추억을 나누는 자리에 많은 사우님의 참여를 바랍니다. 함께한 시간을 돌아보고 새로운 한 해의 희망을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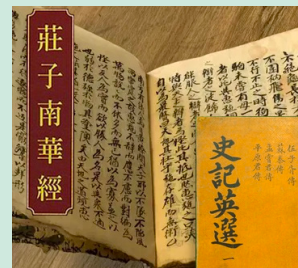
문의 ☎ 02-722-7416



고전동호회

고전동호회가 이달(9월) 16일 개학과 동시에 사마천의 사기(史記) 중, 정조 대왕이 엄선했던 사기영선(史記英選)과 장자의 남화경(南華經) 공부를 이어가고 두 과목이 끝나는 내년에 주역 공부를 시작할 예정이다. 공자가 즐겨 읽은 주역을 현대에 와서 어떻게 접근하고 해석할 것인지 탐구한다.

총무 권혁화 010-3739-0889



바둑동호회

사우회장배 바둑 대회가 10월 15일 사우회 회의실에서 열린다. 사우회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대회는 승패를 넘어 친목과 화합의 장이 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 지혜의 돌 한 수가 아름다운 추억의 한 수가 될 자리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이 있기를 기대 한다.

회장 이진섭(010-8928-3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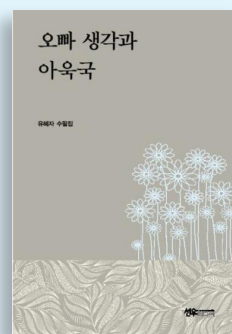


시간안내

『오빠 생각과 아육국』

- 유혜자 사우의 19번째 수필집

국회의 해태상 밑에 노불와인과 백포도주를 각각 36병씩 묻었다는 건 가짜뉴스일까? 정답은 진짜다. 100년 뒤 축하주로 쓸 예정이란다. “급속한 발전에 뒤처져 살면서도 마음속의 애잔한 피리 소리를 잠재우려고 글을 쓴다”는 저자는 흥미롭고, 묵은 생활형 소재를 가지고 시대의 변화와 모순을 부드럽게 짚는다.



『병상에 누우니 보이네』

- 김승월 사우의 브런치북 수필집

뜻밖의 사고로 병상에 누워야 했을 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자리에서, 비로소 삶은 그 얼굴을 드러내고 삶의 태도를 바꾸어 놓는다. 사소한 물건에도 이야기가 깃들고, 보이지 않아도 빛나는 것들을 깨달은 성찰의 기록. 세월의 의미와 삶의 우선순위를 돌아보고 싶은 이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는 책이다.(총 20편)



<https://brunch.co.kr/brunchbook/bedsideview>



사우탐방
INTERVIEW

배움으로 빚고 나눔으로 채우다

봉사로 여는 두 번째 인생

경북 상주시 이안면 소재 비구니사찰 상안사의 요사채 댁들에 앉아 오카리나를 부는 이영삼 사우

이영삼 전 영상미술국장

1969년 MBC-TV 개국 멤버로 입사한 고졸 사원 24명 가운데 유일하게 이영삼 사우만이 회사를 다니면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밟았다. 반세기 전이라도 회사의 배려가 없으면 불가능했을 터, 그는 늘 회사에 감사함을 잊지 않고 “야야말로 개천에서 용이 난 사람”이라고 말한다.

183cm의 장신인 그의 어깨에 걸린 ENG-카메라, 그것은 세상의 희로애락을 기록하는 검(劍)이자 붓이었다. 그는 그 무게로 세상의 진실을 치열하게 휘감았으며 260명 가까운 직원을 통솔하는 영상미술국장을 거쳐 은퇴할 때는 이미 4권의 전문 서적을 쓴 저자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입지전적인 그의 진짜 이야기는 은퇴 이후에 시작된다. 그는 은퇴를 또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삼았고 그 문을 열고 들어선 뒤에도 여전히 배우고 여전히 나누며, 여전히 길 위에서 있다. 침과 땀을 배우고 명리학의 세계를 탐구하고 제빵 기술을 익히고 오카리나를 불며 그는 늘 새로운 언어를 익히듯 삶을 확장해 갔다.



상안사의 대웅보전(108평)

배움은 멈추지 않는다

“배움에 끝이 있나요? 죽을 때까지 배우는 것이죠. 그렇지만 제게 있어서 배움의 끝은 언제나 남과 나누기 위한,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기쁨을 위한 것입니다.”

그는 사이클 동호회의 한 회원에게서 네다섯 번 빵 만드는 기술을 배웠다. 그리고 인터넷 레시피를 통해 제빵 요령을 습득한 후, 혼자서 3개월간 수없이 빵을 만들었다 버리는 실패를 되풀이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자신의 의도대로 빵이 만들어지고 그 빵을 먹어본 사람들이 맛있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 배운 지 딱 1년 만이었다.

“내 손끝에서 부풀어 오른 빵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나의 하루, 나의 마음이 발효된 결과물 같아요. 그 빵이 있다는 건 내가 아직 살아서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전할 수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는 집에서 자신의 손끝으로 빚은 빵을 들고 경북 상주시 이안면에 있는 비구니 사찰 상안사(祥安寺)로 가곤 한다. 수십 년 전부터 지인을 통해 알고 지내는 그곳의 큰 스님을 비롯한 여러 스님이 그가 만든 빵이 맛있다고 좋아하자, 그는 반죽기와 오븐을 사찰 정지(부엌)에 사다 놓고 갈 때마다 반죽을 치대 새 빵을 만들어 주고 있다. 그래서인지 아니면 대웅보전 탕화와 주변에 소나무 20그루를 시주해서인지 그는 남자의 출입이 금지된 정지를 마음대로 들락거렸고 반죽이 숙성되는 동안 요사채 댁들에 앉아 오카리나를 불어도 제지를 받지 않았다.



스님들이 좋아하는 이영삼 사우의 오븐 빵

지진과 전쟁터, 그리고 영세민을 위한 기부

그는 지진과 전쟁 등으로 인명피해가 극심한 곳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해당 재난 지역마다 100만 원씩 국제 자선단체를 통해 기부했다. 경기신문에 따르면 그는 김포시 고촌읍의 ‘나눔 천사’다. 그와 그의 딸은 지난 2022년부터 1년에 두 번(크리스마스와 부처님오신날) 120만 원 상당의 영세민을 위한 물품 후원(올해는 선풍기)을 해오고 있다.

“나눔이란 건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찌어찌해서 선행이 드러나면 그 선행은 이미 내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본 누군가의 선행을 꽃피우는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선행은 제 손을 떠나 세상으로 건너가는 거지요”

그는 여전히 바람을 가르며 달린다. 사이클 동호회에서 땀을 흘리고 자신이 만든 빵을 가지고 나가 회원들과 같이 나눠 먹는다. 그리고 1년에 3번, 한 번에 2주일간 동남아로 골프 여행을 떠난다. “몸을 움직이고 자연과 어울리면 마음이 다시 젊어집니다” 라면서.

그는 한때 골프장을 매입하기 위해 필리핀에 갔다가 가격조건이 맞지 않아 포기했었다. 대신 필리핀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고, 그 학생 가족을 위해 집을 지어줬다. 또한, 캄보디아에서 우물 파주기 지원사업에 참여했었는데 그 사업과 별도로 자신이 전액 지원해 한 마을에 우물을 파주기도 했다



공방에서 빵 공방을 준비하는 이영삼 사우

끝나지 않는 여정

나는 그에게 자선 활동 여력(자금)이 어디에서 나오는지요? 라고 묻지 않았다. 다만 지나가는 말처럼 그가 언급하는 부동산 경매,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익의 전부 혹은 일부를 기부하는 눈치였다. “내가 가진 걸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저는 충분히 행복하고 누구도 부럽지가 않습니다” 라는 이영삼 사우. 그의 하루는 작은 빵 한 덩어리, 작은 기부, 오카리나 한 곡으로 채워지고 있지만 그 작은 이야말로 삶을 가장 크게 만드는 힘이 될 듯했다.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793252> (경기신문)
<https://www.joongboodaily.com/news/15470> (중부데일리)



생필품 기부. 김포고촌읍장과 함께

은퇴 후 다시 심장이 뛰었다

100세로 이어지는 열정

한국 아나운서클럽 회장 이현우/사회복지학 박사

우윳빛 피부에 분홍빛이 섞여 건강해 보이는 얼굴, 캐주얼 재킷을 걸친 뚝 떨어진 어깨, 그리고 샘처럼 솟아나는 그의 입담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라고 묻는 걸 잊게 된다. 현역시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카메라 앞에 섰었다는 그는 왜 많고 많은 분야 중에 방송이 아닌 사회복지학 박사가 되었던 걸까?

“돌봄이 필요한 이들과 소통하는 재주가 있으셨나 봐요” 내가 물었다. “없다고 할 수 없겠지요. 아나운서부장 때, 저는 교회의 장로였는데 안수집사님이 앞으로 사회복지 분야의 전망이 좋으니 저 보고 공부해 보라고 권유하셨지요. 그분은 대학교 교직원이었으니 오죽하셨겠어요. 하지만 저는 아나운서로 잘 나가던 때라 처음에 관심이 없다, 고 했었는데 그만.....”

그가 잠시 눈을 감고 나서 말했다. “계열사 임원 등에 관심과 소망을 두기도 했지만 부족함과 벽에 부딪히는 일이 많아서 마음의 갈등이 심한 가운데 기도하던 중 생각을 바꾸게 되었지요. ‘회사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찾게 만들자’고요. 그때부터 아나운서 경험을 살려 소통 능력과 공감력이 환영받는 사회복지학 교수가 되겠다고 각오했어요”

사회복지학 교수가 되려면 ▲박사학위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현장 경력의 3가지 요건을 갖춰야 했다. 하여 그는 정년을 5년 남겨 놓고 그리스도 신학대 사회복지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복지사 1급 국가자격증을 땀다. 그리고 학교 이름보다 학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그는 곧바로 한영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 과정에 입학했다. 동시에 현장 경력을 쌓기 위해 「천사복지재단」 상임이사 겸 총괄원장을 맡아 실무경험을 쌓았다.

**“가르치고 배우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은퇴경제학」**

박사학위를 받는 등 교수의 3가지 요

건을 갖춘 그는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법제학 교수, 유원대학교 사회복지 실습 교수를 거쳐 지금은 서울시 이버평생교육원 실습지도 교수다. 그리고 지난 3월, 전국 전/현직 아나운서 700여 명이 모인 「사단법인 한국 아나운서클럽」의 제12대 회장으로 취임해 「한국 아나운서 100년사」 발간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 아나운서 100년사」는 우리나라 방송 역사가 100년째 되는 2027년 2월 27일에 맞춰 간행할 예정인데 전국 언론단체와 개인들의 관심이 높아 이미 조선일보로부터 집필 지원비로 8백만 원을 후원받았다.

방송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회복지학 박사가 아나운서클럽 회장이 된 것을 보면 ‘인생은 천천히 가도 끝까지 가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격언과 맞아 떨어진다. “길게 보면 계열사 사장을 하지 않았던 내가 승리자가 아닐까요? 지금 70대 중반의 나이인데도 여전히 교수님, 박사님 소리를 들으며 활동하고 있으니까요”

맞는 말이었다. 하지만 ‘자격증을 따서 평생 일에 묻혀 사는 게 반드시 행복한 인생일까?’라는 의구심이 생겼다. “제 주변에 은퇴하면 일에서 벗어나 쉬고 싶다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 일했던 고단한 삶에 대한 일말의 지겨움을 누구나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일을 안 하고 놀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자력으로 사업을 일군 사람들이 아니라면 그리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겠지요. 대개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은퇴자들은 앞으로 30년~40년을 더 살아야 하는 셈인데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그 많은 세월을 백수로 견딜 수 있을까요?” 그는 말이 끝나자마자 최근에 구입해 읽고 휴대폰에까지 저장한 책 내용을 소개했다.

미국의 여의사 글래디스 맥게리(Gladys McGarey) 박사가 102살에 쓴 『나이 들수록 행복해지는 인생의 태도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책이었다.



인생 3막

맥게리 박사는 “내 나이 기준으로 99세 이하면 모두 젊은 사람이다. 그러니 나이가 많다고 하지 말고 가슴 뛰는 일을 찾아라, 그것이 삶을 살리는 길이다”라고 일갈(一喝)하고 있었다.

지난해 103세로 사망한 그녀는 여섯 자녀를 낳고 기른 어머니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지만 난독증, 성차별, 두 차례의 암 투병, 딸의 죽음, 이혼 등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어야 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만년까지 가슴 뛰는 일을 찾아 날마다 기쁨과 생기로 넘치는 생을 누렸다.



서울사이버평생교육원 수강생 60명의 리포트를 검토하고 있는 이현우 회장.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고, 그런 일이 아니더라도 취미, 새로운 공부, 그림, 글쓰기, 텃밭 가꾸기, 손주들과의 시간, 동네 봉사활동 등등 뭐든 찾아서 새로운 나만의 정체성을 확립하라는 맥게리 박사의 말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 역시 10년 넘게 배운 아코디언으로 연주 봉사활동을 하면서 삶의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이달 하순에는 연 매출 2조 원이 넘는 기업체의 초청을 받아 실수하지 않으려고 클래식을 연습하고 있어요. 또 지난 2일에는 동탄 노인대학 개강식 특강이 있었고요. 이

렇게 매일 매일 바쁘답니다



10년 넘게 배운 아코디언 연주

열정이 멈추는 날이 진짜 은퇴라는 그는 천직인 아나운서에서 교수로, 교수에서 다시 아나운서클럽의 회장으로 돌아왔다. 그렇지만 그는 여전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생들로부터 배우며 학생들을 사랑하면서 하루하루 가슴 뛰는 삶을 살고 있다. 만약 그가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그 대답은 사우 여러분 각자의 생각에 맡긴다.



최근 한국아나운서클럽이 주최한 행사

**악기를 연주하며
봉사하는 동안
음악은 삶의 의미가 된다**

인터뷰/정리: 편집장 윤영무

상암소식



지난 7월 상암동 'MBC Mall Park' 지하 1층에 문을 연 '네오블루매mbc 플라워'점이 개업 한 달 만에 반가운 성과를 거뒀다. 본사와 사우회에 이어 최근 'MBC플러스'와 화훼류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브랜드 성장의 발판을 다진 것이다.

남대문 옆 대한상공회의소 건물 앞에 위치한 '네오블루매'는 이미 서울역과 남대문 주변에서 15년 이상 실력 있는

MBC 플라워'의 힘찬 도약 「네오 블루매 플라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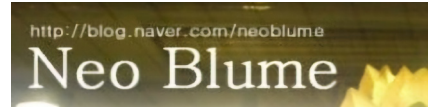
꽃집 브랜드로 꾸준한 신뢰를 쌓아왔다. 상암동에 두 번째 동지를 틈 mbc점 역시 'MBC 가족과 성장한다'는 취지로 출발했다. 사우회의 경조사, 본사의 행사와 기념일, 특히 외부 행사에 나가는 각종 화훼류를 책임지며 MBC 구성원들에게 가까이 다가서고 있다.

'네오블루매'의 박건미 대표는 "MBC의 명성에 맞는 브랜드를 살려 SNS에서 차별화된 꽃집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있다"면서 "본격적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앞으로 5개월 정도 더 걸릴 것으로 예상하지만 MBC 구성원들과 사우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이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화훼장식기능사/화훼장식산업기사/화훼장식기사 등의 국가자격증 시험

문제 출제위원이기도 한 박건미 대표는 "mbc점이 자리잡히는 대로 동호회반, 전문가반, 자격증반과 같은 화훼강의를 할 것"이라면서 "이곳이 단순히 꽃을 파는 가게가 아니라 MBC가족 모두에게 기쁨과 위안을 전하는 공간이 되게 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실제로 개업 초기부터 본사 직원들의 방문이 늘어나고 있고 그 흐름이 최근 MBC플러스와의 계약으로 이어진 게 아닌가 싶다. mbc점의 김효민(여직원) 씨는 "MBC의 젊은 직원분들이 뒷분에서든 개인적으로 축하할 일이 있을 때 자주 찾으시는데 대개 젠틸하시고 필요한 말만 하시는 편이다"라면서 다른 일반 꽃집에 근무했을 때와 분위기가 다른 것 같다고 했다.



박 대표는 "네오블루매mbc점이 꽃집의 폐업률이 높은 시기에 역으로 문을 연 이유는 꽃이 많이 나가는 가을과 겨울 시즌을 준비하기 위해서였다"면서 "이를 위해 테마 꽃다발, 맞춤형 화훼상품 나아가 온라인 주문 시스템을 확충하고 있다"고 말했다.

네오블루매가 MBC Mall Park에 입점한 것을 계기로 꽃집을 단순한 편의시설로 보지 말고 회원들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는 가교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다. 꽃은 단순히 공간을 아름답게 꾸미는 데에 그치지 않고 마음을 전하고 기쁨을 나누고 위로와 희망을 건네주는 아름다운 묵언의 미디어니까 말이다. 회원들의 많은 애용을 바란다.

☎ 박건미 대표 010-3343-8973

경조사항

구순: 고병조(관리) 36.11.07	최승우(업무) 36.11.15	
팔순: 이재원(전주) 46.09.21.	김순배(기술) 46.09.23.	문진영(보도) 46.10.04.
추성춘(보도) 46.10.07.	이병구(보도) 46.10.09.	박홍배(전주) 46.10.14.
박한성(관리) 46.10.16.	최창섭(ANN) 46.11.02.	박성배(편제) 46.11.07.
고희: 이인재(편제) 56.09.20.	황우성(관리) 56.09.22.	장덕수(편제) 56.09.22.
박상규(관리) 56.09.27.	이주갑(편제) 56.10.04.	장한진(관리) 56.10.06.
윤정식(보도) 56.10.08.	지덕환(관리) 56.10.10.	홍순홍(편제) 56.10.15.
이광열(편제) 56.10.23.	윤경진(편제) 56.11.07.	유봉희(관리) 56.11.12.
회갑: 성시우(보도) 65.10.12.	신동수(관리) 65.10.26.	
결혼: 정중희(기술) 따님 7/27	이형곤(관리) 따님 8/23	이여춘(편제) 아들 9/28
부음: 박신서(편제) 장모상 7/12	이현우(ANN) 장모상 7/13	이종례(편제) 모친상 7/16
강진택(관리) 장인상 7/30	최규철(편제) 장모상 7/31	김재현(편제) 부친상 8/9
박종덕(편제) 장모상 8/23	서태경(보도) 모친상 8/23	오규택(편제) 모친상 8/27

연회비

평생회비: 채환규(편제)	임미영(관리)	성시우(보도)	조창호(보도)
2024년: 김광용(기술)			
2025년: 권수훈(관리)	이운형(관리)	고학진(관리)	김일수(편제)
김종민(편제)	홍학표(업무)	이명숙(편제)	정국록(보도)
한병우(보도)	조태병(편제)	문정철(기술)	주병도(편제)
박용규(기술)	강진택(관리)	양영욱(관리)	이기준(관리)
최영호(편제)	고석만(편제)	박영선(보도)	박복만(편제)
김승한(보도)	오명균(편제)	김영일(보도)	이시권(편제)
			장두형(대전)

김순홍(대전) 오순심(편제) 김환균(편제) 경진근(편제) 이연구(업무) 박명호(편제)
이병구(보도) 송주환(보도) 조병영(관리) 최노석(보도) 이은숙(관리) 김세일(관리)
김영금(관리) 김성수(보도) 이상길(편제) 박병선(편제)

2026년: 마병두(편제)

2027년: 최경미(ANN) 홍종선(편제)

2028년: 백명순(ANN)

2037년: 지원용(관리)

주소변경/신규

편제 유한기 전남 순천시 환선로 132 (석현동, 주공아파트)
채환규 경기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157번길 60 (화서역 푸르지오브리시엘)
김재동 서울 송파구 오금로 407 (오금동, 상아아파트)
최용원 경기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448번길 28 (원천 레이크파크아파트)
전용수 인천 연수구 랜드마크로 110 (송도 오션파크 베르디움)
보도 유기철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130 (답십리동, 래미안위브)
최노석 서울 성동구 무학로 50 (하왕십리동, 벽산아파트)
양성호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27 (여의도동, 롯데캐슬엠피아)
이석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99 (잠실동, 잠실엘스)
성시우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201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허연희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251 (잠원동, 메이플 자이 1단지)
조창호 서울 중구 다산로 32 (신당동, 남산타운)
관리 김영금 경기 과천시 별하로 63 (와동동, 호반써밋 이스트파크)
경정수 경기 평택시 청원로 1290 (장당동, 평택석정화성파크드림)
이운형 서울 강서구 강서로 266 (우장산아이파크이편한세상아파트)
임미영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95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이영자 서울 구로구 경인로 343 (고척동, 삼한로즈빌)
지원용 경기 광주시 도척면 국사봉로63번길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전응덕(보도)
2023년 11월 21일 별세,
향년 91세
1963년 보도부장 입사
중앙일보 전무,
한국방송공사 이사,
한국광고단체연합회회장



김철순(업무)
7월 4일 별세,
향년 83세
1969년 광고업무 입사
업무부장, 광고국장
전주MBC 사장



하민웅(관리)
7월 5일 별세,
향년 84세
1979년 입사
비상계획부장, 시설국
부국장



MBC사우회
협약업체

세란병원 건강검진센터 1577-0196
C&G라이프 상조서비스(박성준 대표) 010-8761-6643
JC소망안과(여의도) 전용예약 콜센터 02-785-1068

/회/원/동/정/

대한민국오페라대상조직위원회 위원장에 위촉



김영철(편제)

김영철(편제) 회원이 대한민국오페라대상조직위원회 위원장에 위촉되었다. 대한민국오페라대상조직위원회는 오페라의 창작과 제작, 공연을 지원하는 일을 하는 한편 1년간 공연한 오페라 중 우수한 작품, 성악가, 지휘자 등을 선정하여 매년 12월 시상식을 개최하고 있다. 대한민국오페라대상은 우리나라 오페라계 최고권위의 시상식으로 올해로 18회째를 맞고 있다.

시각장애학생 미술작품 초대전

김상옥(편제) 회원이 회장으로 있는 (사)동의난달 운숙미술회가 주관하는 시각장애학생 미술작품 초대전 "마음으로 봐 주세요"가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인사동 인사아트플라자 4층 갤러리에서 열렸다. 운숙미술회는 시각장애학생들도 미술을 향유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들의 작품을 전시해주는 일을 하고 있다.



기고

아름다운 시작보다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마무리입니다.

얼마 전 지인 친척의 안타까운 부고 소식을 접하고는 마음이 내내 무거웠다. 젊은 시절, 그분께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로 열심히 사셨고, 은퇴 후에도 왕성하게 경제활동을 하셨던 나름 폼나는 골드 싱글이셨는데, 갑자기 본인의 삶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채 쓸쓸히 돌아가셨다고 했다. 뒤에 남은 사람들은 사전 대비가 전혀 없어 뒷수습에 무척 애를 먹었다고 한다.

곧 다가올 운명을 앞에 두고 가족 등 주변에서 이에 대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거나, 또는 무엇을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 우왕좌왕했을지도 모른다. 딱히 누구의 잘못을 따질 계제도 아니다. 언제부터인가 이런 중요한 일이 대수롭지 않게 뒷순위로 밀려난 것 같아 아쉽다. 누구도 대비하거나 훈련받지 않는다. 특히 가족이 분화되면서 이런 현상이 더욱 두드러져 보인다.

누군가 사망하면 부동산, 저축, 연금, 보험, 사인 간 채권이나 채무 등 재산에 관해 상속이나 기부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정리가 필요하다. 아울러 고인의 휴대폰이나 서적, 일기장, 사진첩 등 고인의 흔적이 기록된 유품은 또 어떻게 처리할지 꼼꼼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 평소애 고인과 친했던 분들에 대해서도 가능하다면 아름답게 설명하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

보통 2대, 3대가 함께 살던 한두 세대

전만 해도 죽음에 대해 사전 준비할 게 별로 없었다. 겨우 수의를 짓거나, 못 자리를 마련하는 정도였다. 50대 중반에 정년퇴직해 편하게 지내면서 환갑 잔치하고, 자식에게 효도 받고, 손자 손녀 돌봐주다 운 좋으면 70세 전후에 생을 마쳤다. 이러면 남 부럽지 않은 성공한 인생이었다. 문제는 점점 뚜렷해지는 고령화 추세이고 이게 사태를 키운다.

지금은 대부분 아흔을 넘어 백 세를 살다 죽지만 아무도 원치않는 거 같다. 오죽하면 '재수 없으면 100살까지 산다'는 자조적인 얘기까지 나돌까? 아마도 그 나이가 되면 노인 질병, 노인 빈곤, 노인 고독이 기다리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 또 죽음의 길목에는 치매라는 천형(天刑)이 기다린 지 오래다. 공포스럽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을 본인은 물론, 자식들도 내키지 않아 한다.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다.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것은 더 이상 특정인의 문제가 아니다. 누구나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생의 마지막 장면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생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준비하는 것은 단순한 죽음의 예행연습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적인 행동이다.

<1,000만 노인의 시대>에는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 우리는 보통 인생을 1막과 2막으로만 표현하지만, 이제는 3막으로까지 확장해야 한다. 70세를 넘겨도 20~30년은 더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에 대비하여, 미래 30년을 행복하게 살려면 미리 계획하고 준비해야만 한다, 준비나 계획이 없는 장수는 축복일 수 없으며, 오히려 주변에 민폐만 끼치게 된다.

어느덧 시니어 관련 업계에 몸담아 지낸 지 3년째다. 입문하기 전엔 웰다잉에 별로 관심도, 지식도 없었다. 이제야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노인 문제에 대해 눈을 뜬다. 스스로 내가 원하는 마지막을 잘 선택해서 품위 있게 죽는 것, 젊은 시절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하며 살았던 것처럼, 수동적으로 죽음만 기다릴 게 아니라, 잘 준비해야 본인은 물론 가족과 주변들도 편안한 것이다.

요즘 부고를 보면 8, 90대가 대부분이지만, 또래의 친구나 지인들의 본인상 연락도 받으면서 이제 죽음을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부쩍 든다. 평생 죽지 않을 것 같은 젊은 시절에는, '언젠가는 나도 노인이 되겠다' 막연하게 생각했었다. 엇그제 태어난 손녀를 보면서, 속으로 건강하고 멋지게 살다가 죽어야겠다고 다짐했다. 훗날 멋쟁이 할머니로 기억되고 싶다는 작은 소망 때문이다.

이다.
내가 죽은 뒤,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 참 깔끔하고,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떠났네'라는 얘기를 듣고 싶다. 아름다운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마무리이다.

웰다잉에 실제로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보면

법적 효력이 있는 필수 서류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본인 의사를 미리 표명하는 서류
 - 가족이 없을 때 가족 대신 결정할 수 있는 근거
2. 자필 유언장
 - 본인이 직접 작성, 날짜와 서명 필수, 공증인과 증인 2명
 - 재산분할, 장례 방식 등에 대한 의사 표명

실용적 서류 준비

3. 사전장례의향서 : 장례 방식, 장지 결정, 부고, 연락처 등
4. 사전치매의향서 : 치매돌봄 방식, 요양시설 입소 의사, 경제적 결정권 위임
5. 재산 및 금융정보 정리서 : 은행계좌, 보험, 부동산, 채권/채무관계 정리
6. 개인정보 및 디지털 유산 관리 : SNS, 온라인계정정보, 디지털파일 정리
7. 성년후견인 지정서 : 치매나 중병시 판단력 잃을 시 재산관리나 의료 결정
8. 자서전 : 삶의 의미 정리, 후손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등



최성금
(한국시니어 TV 사장)

발전 기금을 주신 분들 (7월 17일 이후)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mbcsau.com>)에 있습니다



이수관(관리)
200만원



황외진(보도)
100만원



강철호(편제)
30만원



서태경(보도)
20만원



정남영(관리)
20만원



문장환(기술)
10만원



이석일(보도)
10만원



권혁화(ANN)
10만원



배상무(기술)
1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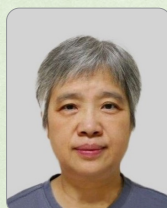


김태홍(기술)
10만원

팔순을 맞으신 강철호(편제) 사우회는 사우회가 드린 축하금 10만원에 오히려 20만원을 보태 30만원을 발전 기금으로 내주셨다. **“별것 아니고 그저 함께하고 싶었을 뿐”**이라며 말들려 지금 병석에 있다는 옛 동료의 건강만 걱정하신다. 마음이 뭉클하다.

발전기금 납부 계좌 : KEB하나은행 158-890070-29405 MBC사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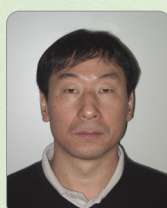
사우회 가입을 환영합니다



임미영(관리)
1985년 정보시스템부 입사
전산부, 회계부,
제작운영부,
마케팅부 등 근무
2024년 정년퇴직



성시우(보도)
1995년 보도국
CG담당 입사
보도 프로그램 타이틀
그래픽 제작
2025년 정년퇴직예정



이운형(관리)
1995년 건축담당 입사
일산제작센터 설계 및
건설관리, 시설관리,
자산관리, 구매업무
2023년 정년퇴직



조창호(보도)
1991년 기자 입사
사건, 검찰, 국방부,
외교부 등 취재
비서실장, 시사제작국장
2025년 정년퇴직

정동레터

♥ "사우회를 도와주세요." 사우회 회장이 아니었다면 후배들에게 꺼내지 않아도 될 부탁일 터. 그 무거운 체면과 스트레스 외면마시고 사우회 이 사님들, 함께 해 주실까요?

♥ 사회복지학 박사, 70중반에도 교수이신 선배가 부럽지만 그 길을 따르기엔 이미 늦었고. 그렇다면 전공에 얽매인 박사나 교수가 못하는 일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게 뭔지 아시는 분 계시면 사우회보로 연락주세요^^

♥ 편집회의에 참석하신 전 미디어텍 최현 사장

님 말씀이 '방송사 수명은 60년이라는데 MBC는 65년째 살아있다'는 것. 여전히 브랜드와 역사적 무게는 힘을 발휘하는 중이나 후배들이여 좀 더 힘내라고 파이팅!을 외쳐봅니다

♥ 빵 만들어 주는 봉사활동 따라갔다가 비구니 사찰에서 선물로 만들어진 솔뚜껑만한 공양밥 누룽지 받고 그게 빵보다 더 좋았으니 송송 드시고 "밥 잘 먹었다" 하시던 어르신들 웃음의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네요

편집부 윤영무

국민과 전문가 모두가 선택한 MBC 뉴스

〈시사저널〉 조사 영향력·신뢰도·열독률 2년 연속 1위!!!

“국민 영향력 조사 최초로 지목률 60% 돌파”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매체 (단위 : %)



바른 뉴스 MBC
힘 있는 뉴스 뉴스데스크

월~금요일 저녁 7시 40분 | 토·일요일 저녁 7시 55분